

“가만 있다 벼락거지 될라”… 주식시장 ‘앵그리 머니’ 몰려

코스피 급등에 투자자 증가
공매도 순보유 잔고 9조 돌파
“과열 조심… 리스크 관리 필요”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NH투자증권 지점 입구에서 만난 주부 김모(36) 씨 얘기다. 김 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는 게 금리가 2%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계좌를 열기 위해 찾은 고객들로 증권사 지점 안은 북적였다. 인근 B증권 강남대로센터 관계자는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며 활황세를 띠자 직장인들과 현금 자산이 많은 고령의 고객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 같은 투자자들이 늘면서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3% 상승한 3202.03에 마감했다. 낮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에서민·중산층과 청년층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0.83% 오른 3202.03 마감한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기록한 3202.03은 종가 기준 연중 최고다. /뉴시스

사이에 확산하면서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쏟아졌다는 게 시장 평가다.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도 증시로의 자금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가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1일 기준 66조 3692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조원이 넘는 뭉치돈이 들어온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개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빌린 돈(신용융자)은 2

조9207억원 늘어나 전체 잔고는 21조 2670억원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90조원에 달한다.

또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잔액은 39조467억 원으로 한 달 새 약 4687억 원 늘었다. 이들 자금도 유사시에 증시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견조한 흐름이 이

어지고 있지만 투자자예탁금, 신용융자 잔고 등이 빠르게 급증하는 등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만큼 부담도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이 유효하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높아 선별적인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데다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면서 급격히 조정방향을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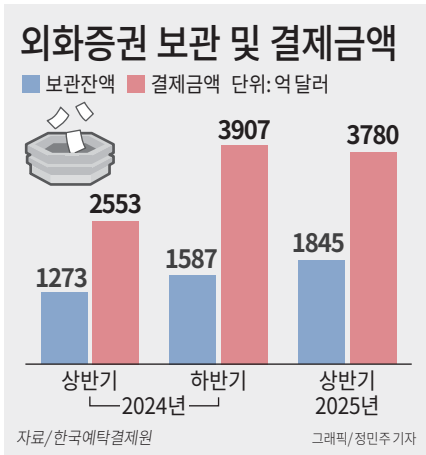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

1844.5억弗… 지난해 말 대비 16% ↑
테슬라 등 美 주식 쏠림현상 두드러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투자 선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에 차지했으며, 특히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컸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1360억3000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11.9% 늘었고,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을 포함한 유로시장, 일본, 홍콩,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212억9400만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엔비디아(135억400만달러), 팔란티어(45억9500만달러), 애플(42억21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3억8400만달

러)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의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직전 반기보다 3.2% 감소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3086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0% 줄었지만, 외화채권 결제금액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결제 시장별 비중에서도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미국을 포함한 유로시장, 홍콩, 일본, 중국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주식이 95.7%의 비중을 기록했다. 결제금액 상위 종목은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TSLA(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등이 뒤를 이었다. /원관희 기자 wkh@

이차전지 ETF, 가격 메리트… 수익률 급등

구조적 리스크 여전… 투자 주의해야

이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부진에서 탈출하고 있다.

1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ETF 수익률 1위는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로 35.45% 급등했으며,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도 29.74% 상승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TIGER 2차전지TOP10’ (16.90%), ‘SOL 2차전지소부장Fn’ (16.36%), ‘TIGER 2차전지테마’ (16.29%) 등 주요 2차전지 테마 ETF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격 메리트를 노린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금도 이차전지를 투자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연기금은 이달 들어 LG화학

841억원어치 사들였다. LG에너지솔루션도 362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그러나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지원의 불확실성,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단기 반등이 나타났어도 산업의 중장기 체력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전후로 2차전지 섹터는 산업 구조 재편과 주요 고객사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급 공백 해소, 정책 불확실성 완화, 3분기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지만 유럽 내 가동률 개선이 제한적이고 북미 전기차(EV)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등 밸류체인(가치사슬)별 실적 변동성으로 다른 섹터 대비 매력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ETF 모으기’는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매일·매주·매달 특정일에 원하는 금액·수량만큼 주식을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투자자들이 국내ETF와 리츠를 이용해 은퇴자산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서비스오픈을 기념해 가입 고객 대상으로 ‘퇴직연금 ETF 모으기 이벤트’도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 가입 후 1회 모으기 달성 시 커피쿠폰, 5회 모으기 달성 시 아이스크림 쿠폰을 전원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 모으기 체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 100명을 추첨해 치킨 쿠폰도 지급한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는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이나 삼성증권 지점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삼성운용, 타겟커버드콜 ETF 2종 순자산 1조 돌파

KODEX 200·금융고배당TOP10

삼성자산운용의 대표적인 타겟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이 합산 1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이 727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 7개월여 만에 7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ETF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 배당과 코스피

200 지수의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장 이후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개인순매수가 445억원을 기록해 하루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43개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올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4945억원을 기록,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순자산 3601억원을 기록하며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사에 투자해 금융주의 주가 상승에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타겟 커버드콜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최대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주가 상승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몰이 중이다. /원관희 기자